

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

-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

김성수*

- < > —
1. 문제 제기
 2. 지방연구의 배경과 제주학의 정체성
 3. 지역 특권을 넘어서 할 제주학
 4. 현재진행형 제주학의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사람이 아닌 타자(他者)의 시선으로 제주학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주는 지역 연구를 넘어서 지역학(regional science)을 펼치기에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 ‘본풀이’ 같은 신화, 무가가 생활 속에 살아있고, ‘4.3항쟁’ 등 현대사의 쟁점도 ‘4.3문학’ 등으로 변주되어 다양하게 향유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편협한 지방주의와 배타적 향토주의 같은 지역 특권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만의 독특한 언어, 민속의 특수성에 집착하여 급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료를 과거의 원형대로 수집, 보존하는 데 만족하면 곤란하다. 살아있는 문화를 박물관에 전시하는 골동품처럼 화석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수집한 자료가 훌륭하다고 자랑하는데 그치지 말고, 연구의 의의를 확대하여 ‘제4세계문학론’의 선례 같은 보편이론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제주학의 담당자 또한 제주사람이라는 주체의식이 강조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있다. 출신과 거주 의식, 애향심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기중심주의에 빠지면 학문의 발전을 기할 수 없고 연구자 풀이 줄어드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 제주학은 이제 과거의 제주에만 머물지 말고 도시화, 탈근대화가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제주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를 벗어나야 진정한 제주학을 할 수 있다.

주제어 : 제주, 제주학, 제주문화연구, 지역학, 지역연구, 지방주의, 본풀이, 4.3문학

1. 문제 제기

우리 학계에서 지방/지역학, 지방/지역연구¹⁾가 본격화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게 되면서부터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가치가 소중해진 것이 지방사, 지역연구의 실질적 배경이다. 하지만 지방 연구가 새로운 의의를 가지는 것은 중앙집권적 근대 국민국가가 권력의 중심이라는 절대적인 위치를 잃고 사양길에 들어선 문명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지방사

1) ‘지방/지역’의 용어 선택에 대한 조동일의 논의에 따르면 둘의 구분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대개 ‘지역’은 넓게는 여러 나라를 합쳐서, 좁게는 한 동네의 일부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국가 내부에 있는 통상적으로 구분되는 단위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왜냐하면 문화전통에 대한 인식이 ‘지방’에는 있고, ‘지역’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방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오랜 역사에 근거를 두고 구분되며, 전에는 독립국이었던 곳들이 많고 언어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이다. 유럽에서 예를 찾으면, 웨일스, 카탈로니아, 브르타뉴, 바이에른, 롬바르디아 등이 그 좋은 예이며, 우리 경우에는 제주도가 한 지방인 것은 그런 곳들과 같다고 한다.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출판부, 2003. 서론 참조. 또한 ‘지방/지역/향토’의 개념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한 임재해,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구상과 전망』 『안동문화연구』 8호, 안동문화연구회, 1994.11., 105-108쪽도 도움이 된다.

치가 10년 넘게 실시되었는데도 지방자치의 목표인 지역 등권화, 권력의 분점과는 반비례할 만큼 현실은 여전히 부와 문화의 또 다른 중앙집중화, 서울 중심화가 가속화된 것이 역설적 현실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봉건제의 중세적 전통을 지냈기에 근대 이후에도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권력의 분점/균점으로 이루어졌던 서양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속했고 근대 국민국가에 이르러 그 집중성은 절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반도 및 부속 도서를 지배하는 수도 서울의 횡포에 대한 지방의 반감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지금도 서울 ‘특별시’ 및 수도권에 대한 지방/지역의 반감은 널리 퍼져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제국의 중심인 서울과 식민지인 지역의 대립’²⁾으로까지 매도된 중심/주변의 이분법은 1980년대까지 그 모순이 절정에 달했으며,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이후 적지 않은 모순과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형국이다.

이 글에서는 중심/주변의 이분법을 해체하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학으로서의 제주학의 위상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확대라는 세계화시대인 2008년 현재, 제주학이라는 지방연구는 왜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미 나온 제주학 연구의 필요성과 취지를 반복하지 말고 다시 묻고 다시 새로운 대답을 찾아야 할 터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제주학 총론들은 한 목소리로 제주인이라는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논의를 펴고 있다.³⁾ 이에 반해, 서울사람인 필자는 제주인

2) 김정호, 『서울제국과 지방식민지』, 지식산업사, 1991. 참조.

3) 참고한 제주학 총론은 다음과 같은데, 제주 출신의 국문학자 현길언 이외엔 제주대의 현직 교수들이 총론을 주도했다. 현길언, 「제주학 연구방법론 -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집, 제주학회, 1994. (=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재록);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6. (= 신행철 외, 『제주

이라는 자기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학으로서의 제주학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바깥의 시선이 필요한 지점이 생긴다. 제주학도 엄연히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 중이고 제주가 그 학적 대상인 만큼 제주라는 특정지방 출신이나 거주자가 아닌 시선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일지 살펴보는 것은 학문 정착기 초기의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에서 나온 자란 서울 토박이란 타자의 시각에서 제주학 내지 탐라문화연구의 위상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⁴⁾

2. 지방연구의 배경과 제주학의 정체성

제주학은 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지방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본격 출발하였다. 그전까지 지방 연구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중앙의 관점에서, 중앙에서 파견되거나 위임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관료적, 관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연구결과도 중앙정부에 의해 관료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93년에 서울학연구소가 설립된

사회론2』, 한울, 1998. 재록) ; 조성윤,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세미나 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 김동전, 『제주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 허남춘,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12.

4) 필자는 분에 넘치게도 탐라문화연구소 편집위원을 맡았으나 제주학의 과제와 탐라문화연구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대로 할 주제적 입장에 서지 못했고, 설명과 과욕을 부리려 하더라도 논의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학문적 능력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제의 현실적 발전과 더불어 지방문화의 중심/주변의 전통적인 경계나 이분법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학으로서의 제주학의 위상을 거칠게 가늠해볼까 한다.

것을 시작으로 주체가 달라졌다. 경주학연구소, 전북학연구소, 제주학연구소, 대전-충남학연구소, 충북학연구소 등 지역연구의 체계화를 담당하는 지역 단위의 연구소가 축출하면서 그 주체가 중앙정부와는 변별되는 지역인, 시민사회, 연구집단으로 다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반 학계의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지역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직이 본격화되었다.⁵⁾

제주도는 광역자치 행정지역 전체가 대륙, 육지와 단절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연구 단위로서의 경계가 분명하고 주민들의 정체성, 독립성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일찍이 지역학 대상이 되었다. 행정구역상의 지역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의 지방성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다른 지방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자적 역사와 독립국가 경험과 언어적 차이가 엄존한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학의 본격 출발을 돌이켜보면, 1997년에 제주학연구소가 결성되어 제주도내 각 지역별로 마을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연구활동을 전개한 결과 『제주학』 4집(1999)까지 간행하였던 것이 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전문사학자와 향토사학자가 결합된 형태로 모임을 이끌던 제주도사연구회가 2004년 제주학회로 개칭하고 이전의 연구지를 계승하여 『제주도연구』를 간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 게다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제주학의 중요부분을 지속적으로 담당한 결과, 2008년 현재 『탐라문화』 32호까지 꾸준

5) 주로 지역 대학의 교수 중심으로 설립된 연구소들로서, 1993년의 '서울학'을 필두로 하여 제주학(1997), 대전충청학(1998), 충북학(1999), 영남학(2001), 호남학(2001), 충청학(2001), 인천학(2002) 부산학(2003), 대전학(2004) 대구경북학(2005) 등이 출발하였다.

히 정기 학술지를 간행하고 있으며, 『탐라록』, 『탐라지초본』, 『탐라지 제주도부락지』, 『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 등 많은 자료집과 『제주도 고문서연구』,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등 연구서를 간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⁶⁾ 그러나 제주 지역 학자들에 의해 제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그나마 『제주학』 『제주도연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탐라문화』 이외에는 이렇다 할 정기적 지속적 연구가 이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제주학은 아직 초창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⁷⁾

그러면 제주학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 먼저 제주학이라는 용어부터 생각해보자. 보편적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지역학 학계의 객관적인 입장을 따라 ‘제주도연구, 제주학, 제주문화연구’가 좋겠지만, 제주의 고유한 특성과 주체적 관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탐라도연구, 탐라학, 탐라문화연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탐라문화연구소의 연구소 소개 글을 잠시 인용해본다.

“제주학에 대한 편견은 극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해가는 과정에서, 몽고의 침탈과 삼별초군의 항쟁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제주가 처음 한국사에 등장한다.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밀도 끝도 없는 역사서술인 셈이다. 고대 탐라국의 역사적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소외는 심각한 편이다. 민족사의 온당한 전개를 위해서는 제주사를 끌어안아야 하듯이,

6) 김동진, 『제주 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참조. 특히 2008년 『탐라문화』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지방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7) 조성윤,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세미나 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결론부분 참조.

민족학을 위해서는 제주학을 관심 있게 탐구해야 하고, 지금이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사라지는 전통을 복원하여 계승할 기회를 잃게 되고, 제주학 연구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 연구자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거점대학에서 제주학 연구풍토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⁸⁾

인용문에 의하면 제주학 연구가 왜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지 그 역사적 유래와 사회적 문제의식 및 현실적 필요성을 절박하게 언급하고 있다. 종래 중앙관료제 하의 위로부터의 ‘제주학’ 연구의 역사적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탐라문화연구’라는 내재적 주체적인 문제의식과 현실적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현실적 위기의식의 절박함 속에서 지방학이 이루어진다면 ‘탐라학, 탐라문화연구’로 용어를 통일해서 가치지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일지도 모른다. 이 경우 1970년대 말에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당시 ‘국학, 한국학, 민족문화연구’의 용어 개념상 차이를 설명하고 가치지향적인 ‘00문화연구’가 제대로 된 문제의식의 반영이자 방향이라는 조동일의 주장도 참고가 된다.⁹⁾

하지만 이는 지방/지역학(연구)이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해야 했던 저 80년대식 ‘지역문화운동’의 시점¹⁰⁾으로 퇴행하는 것일

8) 허남춘, 연구소 소개 인사말, 탐라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tamla.or.kr/intro/sub01.php>)

9) 조동일, 「민족문화연구의 전반적 과제」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3, 43-46쪽 참조.

10) 80년대식 지역문화운동이란 당시 서울 중앙정부에 의해 왜곡된 이분법적 지역성에 사로잡힌 지방/지역 주민의 대자적 자각을 통해 그들 스스로 삶의 가치를 높이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문화적 권리를 찾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자각은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문화가 지역의 특정권력집단에 종속되어서 지역행사의 시너 노릇을 하거나 서울의 중앙문화에 예속되어서 어딜 가도 그 지역만의 특색을 찾아보기

수도 있다. 1987년 이전, 그때는 온 사회의 민주화, 특히 지방자치체가 절박했기 때문에 학문적 명명법에서도 의도적으로 ‘한국학, 제주학’ 같은 객관적 보편담론보다는 ‘민족문화연구, 탐라연구’ 같은 주체적 가치담론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보하였다. 하지만 민주화에 성공한 후 지방화가 세계화와 동시 진행되고 있는 2008년 현재는 사정이 다르다. ‘제주학’을 꼭 ‘탐라문화연구’와 대립시킬 필요 없이 상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학도 물론 다른 지방학, 다른 학술운동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이 위기라는 현실적인 절박성이 역사적 사회적 문제의식과 맞물려 지역/지방에 대한 연구의 객관적 동력으로 승화되어야, 처음엔 활력이 넘치다가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진 『제주학』 『제주도 연구』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학, 충청학, 강원학, 대구경북학과 같은 지방학의 보편성에서 벗어나 ‘탐라학’으로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의문이다. 다행히도 연구소 소개글에는 탐라학의 특수성만 강조하겠다는 편협함을 경계하고 ‘민족학과 지역학의 상보관계’로서의 제주학을 자기규정하고 있다. 그간 지방학을 예외적인 관점이나 배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이를 시정해야 민족학도 진정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족학의 정체성은 지역학을 통해서 더욱 두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¹¹⁾

힘든 문화적 획일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에서 문제의식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지역문화가 자기 개별적 주체적이지 못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한 이유는 아마도 중앙집권적 관료제사회에서 문화가 정치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자생적인 지역문화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하겠다.

11) 이와 관련된 탐라문화연구소 홈페이지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연구소 허남춘 소장의 의욕적인 문제의식을 잘 읽을 수 있다. “제3세계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학문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전통문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용어 개념 문제 다음으로 제주학 총론의 쟁점이 되는 것은 주체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학은 1차적으로 ‘제주라는 지역에 관한’ 학문이다. 연구 장소로는 ‘제주도에서 하는 학문’이라는 2차적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연구 주체에서 ‘제주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는 3차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행복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어긋나기도 한다. 이치를 따져보면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단계인데, 실제로는 2,3차, 특히 3차 단계인 제주사람에 의한 주체적 연구가 강조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제주인이 아닌 타자의 시각에서 볼 때, 종래의 제주학 전공자는 내심 “너희가 제주 방언을 알아들을 수나 있어?”하는 식으로 주체적 시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학문의 외연을 스스로 좁힌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방언을 이해, 소통할 수 없는 외지인이나 제주에서 현장연구를 하지 못한 ‘육지부’ 사람은 제주학 주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잠시 제주사람, 제주인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제주인을 제주인답게 통합시키는 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통적으로 ‘삼무(三無)정신’¹²⁾ ‘해민(海民)정신’ 등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평화와 평등을 표상하는 제주인의 전통적인 미덕인 ‘삼무(三無)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족전체의 전통문화를 두루 살펴야 한다는 명제 속에는, 지역학의 중요성이 내재해 있다. 민족학과 지역학은 상보적이다. 그간 지방학을 예외적인 관점이나 배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이를 시정해야 할 시기다. 민족학의 정체성은 지역학을 통해서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 허남춘, 연구소 소개 인사말, 탐라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tamla.or.kr/intro/sub01.php>)

12) 제주인의 정신적 특징을 표상하는 개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통적인 주장은 ‘삼무(三無)’와 ‘즈낭정신’을 든다. ‘삼무’는 거지, 도둑, 대문이 없음을 말하는 제주인의 무형자산이며 즈낭정신도 예부터 매사에 아껴 쓸 줄 아는 절약정신이다.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 제주도의 해민정신』 제3관, 각출판사, 2001. 참조.

정신'이나 어민, 잠녀(해녀), 해양상인 등의 덕목을 지칭하는 '해민(海民)정신'은 본격적인 근대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 이전 과거의 신화가 아닐까 한다. 근대화를 넘어서 탈근대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08년 현재의 실상과는 괴리가 없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 제주인의 정체성을 호명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일 뿐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제주인의 문화적 자아정체성을 갖대 삼아 "제주에 살아 제주를 사랑하고 그 문화와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참 제주인'이 되는 것일까 의문이다.¹³⁾

역사적 실상을 돌아보면 제주문화는 섬문화 특유의 중심부 지향성과 분리주의적 요소가 상호 갈등하면서 공존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제주인 고유의 공동체적 특징으로는 '수눌음', '켄당'으로 대표되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파당성이라 하는데¹⁴⁾,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제주문화의 역사적 복잡성과 다층성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한다. 토박이 대 육지 도래인이라는 주민 구성상의 이중성, 농경문화 대 해양문화라는 산업적 이중성, 지배층의 유교 대 백성의 무속신앙, 남성 중심의 유교식 부락제 대 여성 중심의 해신제, 공식석상의 표준어 대 생활공동체끼리의 토속어라는 언어의 이중성 등등 제주 특유의 문화적 복잡성과 다층성을 설명하는 이항대립은 끝이 없다.

하지만 제주문화의 역사적 복잡성과 다층성을 표상하는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이상하게 지역특수성에 수렴되고 만다. 제주사람의 자기정체성을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분리주의적 속성이 강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연구역량과 잠재적 연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13) 송성대, 『제주 정신문화의 탐구』 『문화와 그 원류 - 제주도의 해민정신』 제3판, 각 출판사, 2001, 75쪽 참조.

14) 현길언, 『제주학 연구방법론-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문화론』, 22~32쪽 참조.

역기능도 생길 지경이다. “제주에 살아 제주를 사랑하고 그 문화와 사고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해야 ‘참 제주인’이 되고, 그들이야말로 제주를 제대로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제주학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제주학에서 말하는 제주인이란 제주도라는 행정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떠나 살면서도 제주도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주학 전공자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제주인으로서의 문화적 자기정체성(identity)에 강조점을 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학을 지역적인 단위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제주인이 중심이 되어 제주인에 의해 제주 지역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가리킨다고 전제한다”¹⁵⁾라는 규정은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을 듯싶다. 제주라는 지역의 출신/거주 여부가 학문적 잣대로 오해된다면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객관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학을 두고 ‘제주인에 의한, 제주인을 위한, 제주인의’ 학문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때 자칫하면 학문적 보편성을 놓치고 지역 특권화의 유혹에 사로잡혀 지역에 안주할 위험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3. 지역 특권을 넘어야 할 제주학

홈페이지에 의하면 탐라문화연구소는 1967년에 설립된 후 제주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제주학’이라는

15) 조성윤,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세미나 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참조.

지역학 체계 내에서 제주 인문학 내지 제주 인문사회과학을 정립하는 과제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각종 의제(agenda)를 던지고 각종 현안에 대해 해답을 모색하며, 일상적인 연구 활동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학은 지방화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선구적으로 출발했다는 시기적 선점성과 함께, 타 지역보다 지역적 특수성이 매우 두드러진 민족지학이라는 점에서 변별성을 지닌다. 때문에 그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들, 가령 향토애에 바탕하여 자생적으로 태동된 후 물밑에서 활동해온 향토연구회 식의 아마추어적 지역연구나, 지역개발과 지역발전 방안을 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해온 사회경제적 지역학(지역행정학, 관광학 등)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터이다. 지역적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당장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정책학적 마인드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인문적 통찰에 기반을 둔 전문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와 이론을 축적한 후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순서가 맞는다.

하지만 인문학적 배경을 지닌 지방학이라고 해서 현실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왜 지방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절박한 현재적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담금질하지 않고 ‘지방이라는 특권’에 안주하는 한 상황인식이 불분명해져 진정한 발전이 요원해질 것이다. 지방을 특권화하고 지역에 안주하면 연구/학문의 관점이 편벽해져 열린 시각의 확대라는 학문 발전을 통한 인간적 삶의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서울에서 나고 자란 국문학도 입장에서 제주학을 전공한 제주학자에게 부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현대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도시적 이미지 고찰'(2005)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에 비춰볼 때 서울 토박이로서의 역사적 체험과 절박한 현실적 문제 의식이 현지조사나 텍스트 분석 등 지역연구에서 별반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적이 있었다.¹⁶⁾ 청계천의 복개와 복원에서 보듯이 1960년대 이후 40여년 넘게 살아온 지역인데도 서울은 '괴물'과도 같이 속내를 파악할 수가 없다. 체험적 이해의 현장이 휘발해 버린 오늘날에는 서울 출신이라 할지라도 서울 지역학의 담지자로 자신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¹⁷⁾

이에 비해 제주학 같은 지역 연구, 특히 문화연구는 지역 출신/거주 연구자만이 속속 깊이 잘 알 수 있는 현장 사례의 밀도 짙은 경험이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제주처럼 원시 고대 문화부터 중세문화의 유산을 거쳐 근현대 내지 탈근대적인 문화까지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지역적 사회적 공간은 거의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학을 전공한 제주 출신 학자들이야말로 전통문화를 생동하게 있고 있는 최상의 명소에서 태어나 최첨단 학문을 하는 좋은 조건에 있으니 부러울 따름이다.¹⁸⁾ 제

16) 시정개발연구원의 2004년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느꼈던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참고, 『남북한 문학에 나타난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이미지 비교』(정책보고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005.4. 참조.

17) 이와 관련하여 서울학 총론에서도 비슷한 심경 토로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는 분명 서울다운 면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바로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다.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당연히 보존하고 있어야 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너무나 많이 소실되었고 파괴되어 서울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다.” 안두순,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안두순 편, 『서울학연구 서설』, 서울학연구소, 1994, 6쪽.

18) 언젠가 조동일 선생이 제주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주가 학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길, “나는 경북 산골 사람인 덕분에 이 정도의 학문을 했지만, 여러분은 제주도에 나고 자란 더 큰 행운을 누리니 더욱 앞선 학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했었는데 그에 깊이 동감한다.

주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원시, 고대, 중세의 문화와 역사 흔적이 생활 현장 속에 남아 있어 지방/지역연구로선 최적의 장소이며,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론도 현장론적 현지조사방법이 널리 쓰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다만 노파심으로 재삼 환기하고 싶은 쟁점이 있다.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출신/거주 같은 향토의식, 애향심, 정주의식(定住意識)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제주 출신 학자들은 자신들만 자기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자긍심이 자만심으로 빠지지 않게 경계해야 할 것이며 지역에 대한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주의에 근거한 배타의식도 주의해야 할 터이다. 어쩌면 그 분들은 서양학자들처럼 제3세계 나라, 오지에 탐험하듯 가서 조사연구를 하고는 보편이론을 서둘렀던 ‘문화제국주의’론자들의 오류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원시 고대와 탈근대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연구했다고 해서, 필자 같은 외지인, 타자의 시선을 지닌 학자의 부러움에 안주할 수는 없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태생적 자격을 타고났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훌륭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주학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역현장에서 현지 조사한 자료와 결과물로부터 출발한 이론은, 지역민이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의 보고와 고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론 정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가령, 본풀이 같은 제주 특유의 민속문화에 대한 현용준, 현승환의 선구적 연구성과에 이어 김현선의 학제적, 보편론적 공동연구가 확대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가 지니는 세계문화사적 가치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현지 조사와 보편이론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주학의 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는 하나의 방향을 암시해준다고 하겠다. 가령 김현선, 이연숙의 주장처럼 제주문화는 중국 운남성의 소수민족이 전승하는 구전서사시나 일본 홋카이도의 아이누가 전승하고 있는 구전서사시, 일본 오키나와의 지역문화와 같은 반열의 ‘주변부-주변부문화’인 공통점이 있다. 이를 두고 김현선이 제기한 이른바 ‘제4세계문학’의 구전서사시적 공통항이라 하여 세계문화사적 의의를 새롭게 높이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¹⁹⁾ 따라서 진정한 제주학자는 제주에 머물지 말고 육지로, 특히 ‘주변부-주변부’인 다른 나라 제4세계 문화현장으로 연구조사를 떠나야 한다.

또한 다른 예로, 본풀이 연구의 일반이론 지향이라는 선포처럼 ‘4.3문학’을 접근할 때도 지역 특수성만 강조하지 말고 이론적 일반화 지향을 거론할 수 있다. 4.3문학을 논의할 때 지역문화가 지닌 역사적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그 자체로 존중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²⁰⁾ 그것은 제주학의 보편화를 위한 출발점이지 도달점이나 목표 자체가 되면 곤란하다는 말이다. 4.3문학을 제주문학의 하위범주에 가두지 말고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저항문학론, 분단문학론, 전쟁문학론 식의 비평방법론/일반이론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 대표작이라 할 소설 『순이 삼촌』²¹⁾은 당시까지 금기영역이었던

19) 김현선, 『제주도 돛제와 퀘네깃당 본풀이 연구』; 이연숙, 『제주, 오키나와의 투쟁의 기억 - 까마귀와 소라개 이야기』, 『동아시아 속의 제주 민속 -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7.5.4 참조.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12, 161쪽 참조.

20)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 제주작가회의 편,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 4.3평론선집』, 각, 2004. ;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나간채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등 참조. 4.3평론선집에 실린 글 16편 중 14편이 제주 출신 학자, 평론가의 글이지만 지역특수성에 머물지 않고 보편이론을 지향하는 다양한 시각이 아쉽다.

4·3항쟁을 유신체제기의 당대문제로 호명한 문학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비록 이 소설로 인해 작가 자신은 보안사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책도 발매 금지되는 고초를 겪었지만,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역사적 의의는 그로 인해 더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계기로 4·3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문학을 비롯해 미술·연극계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4.3문학의 현실이 여전히 30년 전의 회상기 형식 단편장르에 멈춘 것은 문제이다. 지금은 공식역사에서 숨겨진 부분을 고발하는 지역뉴스 차원은 넘어서야 할 때이다. 『순이 삼촌』, 『마지막 테우리』 이후에 이미 문단 원로 반열에 선 현기영의 뒤를 이어 4·3문학을 집대성한 장편을 상재할 보다 젊은 작가가 뒤를 이어 계속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단 현실이나, 창작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비평계, 학계의 공동 노력이 아쉽다.²²⁾

현기영의 문학적 성취를 뛰어넘기 위해서도 ‘4.3문학, 4.3항쟁문학’은 제주의 특수성에 머물지 말고 보편으로 도약해야 한다. 4.3문학은 제주 문학 전체의 하위범주이면서 동시에 ‘5월문학, 5.18문학, 5.18항쟁문학, 광주문학’ ‘3.15항쟁문학, 마산문학’ 같이 비슷한 성격을 지닌 다른 지역/지방문학과의 보편적 연대성을 지닌 ‘저항문학’의 하위범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4.3문학은 제주문학이라는 특수성과 저항문학이라는 보편성 사이에서 길항하는 현재진행형 민족문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남북분단의 역사적 비극과 그 극복운동을 펼친다는 점

21) 현기영 단편소설집 『순이 삼촌』(창작과비평사, 1979)에는 대표작 『순이 삼촌』(1978)을 비롯한 10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다.

22) 『순이 삼촌』의 현기영, 『화산도』의 김석범을 뛰어넘는 4.3문학의 ‘후속세대’에 대한 아쉬움을 논증한 것으로 고명철, 『4.3소설의 현재적 좌표』, 『비평의 잉겔볼』, 새미, 2002.를 들 수 있다.

에서 4.3문학은 분단문학 내지는 통일문학운동의 보편성을 띠었으며, 인류 공통으로는 전쟁문학이나 평화문학, 제노사이드문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현재진행형 제주학의 방향과 과제

제주의 문화는 제주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민의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것이며 세계인,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다. 제주는 육지부와 변별되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공유한 탐라국의 후예 공동체이자 근현대사의 모순과 분열을 온 몸에 받아들인 상처와 항거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서울 수도권 중앙의 문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탈근대적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역이론으로 말한다면 80년대에는 중앙과 지역의 관계를 ‘중심과 주변의 변증법’이라 규정했고, 90년대 이후엔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들 한다. 과연 지금 제주는 중심과 주변의 변증법적 대상인가, 아니면 경계가 허물어진 시공간인가? 아니면 한반도에서 영어공용화, (관세 장벽을 완전히 없앤) 자유무역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 전지구적 세계화의 최첨병이 될 ‘특별자치도’에 안주하는 탈민족적 특구인가?²³⁾

23)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유무역지대화, 세계화에 걸맞는 관광지화는 그 과정에서 제주인을 주체에서 소거하여 제주를 타자화시키고 개발주의, 신자유주의의 침병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 가령 제주도에 국한해서 선진국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을 개발해보자는 발상의 경우, 영리법인병원, 영어공용화 등을 실험하는 의료관광특구의 미명 아래 제주를 ‘격리된 실험실’로 전락시키는 것이라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도 제주학의 주요부문이라는 데서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쟁점이 생긴다. 이는 필자의 능력 밖이라 관련 전문가의 논의를 기대한다.

서울 토박이가 보기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 관광지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지역분열의 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수도권/지방, 영남/호남, 육지/섬, 남한/북한 등 지역분열은 끝이 없고 분열과 분단은 지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를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다. 이때 제주야말로, 분열과 분단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할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다. 제주는 다른 지역처럼 배타적 패권을 노리고 그 자체로 지역 특권을 권력화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의 장 구실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1945년의 분단 이후 60여 년이 훨씬 넘게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고착화한 20세기 후반~21세기 초반 한반도에서 제주야말로 금강산과 함께 분단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남북대화의 최적지라는 것이 한 증거이기도 하다. 욕심을 낸다면 대륙 또는 반도세력/ 해양세력의 경계를 허물고 그 변증법적 대안으로서 동북아의 허브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한가운데 위치한 제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다.

제주학이 제주를 뛰어넘어 육지부, 동아시아, 세계를 향해야 한다는 과제만큼 중요한 것은 문화를 박물관행 화석으로 만들어선 곤란하다는 현재적 문제의식이다. 아무리 과거의 문화유산이 현실생활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도 현재진행형 생활 속에서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인정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진정 학문하는 태도이리라.

명실공히 세계제일의 통신속도를 자랑하는 인터넷 강국을 뺄내는 2008년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의 당대문화는 다층적이며 다성적이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한복판에는 서울 수도권 중앙의 문화와 그 기반이 되는 삶의 모든 것을 거의 그대로 실시간에 옮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주민의 삶이 서울 등 중앙의 삶과 비슷하면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이를 두고 “전국의 모든 도시가 해바라

기처럼 서울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개성과 문화를 상실한 채 서울의 아류화되어 온 것이 지난 천 년대 말의 한반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까.”²⁴⁾ 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어 2008년 지금 이곳의 문화도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인정해야만 진정한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세상사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민속도 결국은 오랜 세월동안 외형을 유지해온 또 하나의 당대적 생활양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중심의 거주형태나 서양식 신식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잃는다고만 보는 것은 일면적인 시각이다. 민속학의 본질적 역할은 생활양식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관계를 의미화하는 것이지 둘을 구별하고 변하지 않는 것만 박물관 전시품으로 화석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지난 반 세기동안 제주는 분명 전근대적 농경/해양문화에서 근대적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거쳐 또 다시 탈근대적 후기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중이다. 가령 산업화와 정에서 산간농촌이나 어촌공동체가 해체, 붕괴되고 아직 존재하는 농어촌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양식상 상당 수준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생활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굳이 화석화된 민속성, 토속성만 따로 떼어내 연구대상으로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려니와 작위성 자체가 학문적 엄밀성에선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제주학은 그 시각을 ‘변하지 않는’ 전근대 민속에만 시야를 한정하지 말고 ‘변해버린’ 제주시, 서귀포시의

24) 최정호, 『문화의 세기, 21세기의 지역문화』,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세미나 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참조.

(http://www.provin.gangwon.kr/home/page/sub1/03_09_01.html).

도시민속과 농어촌에 엄존하는 도시적 삶의 행태까지 논의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사람 상당수가 이미 아파트에서 자동차를 몰고 인터넷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아류화가 된 게 아니라, 근대화가 완성되고 탈근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보편화의 맥락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학도 과거로의 회고적인 회귀보다, 과거 역사도 현재를 만든 시공간적 기반이고 현재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화의 실천’²⁵⁾의 장(場)이라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제주의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모, 근대화와 탈근대화의 동시적 진행이 다른 지방처럼 전근대적 민속과 지역 정체성을 급속히 해체, 붕괴시키지 않았다는 데 중요한 지점이 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제주 특유의 응집력 강한 정서적 유대감 덕으로 세월이 지나고 생활이 달라져도 꺾끗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다른 곳보다 월등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문화는 중심부 지향성과 분리주의적 요소가 상호 갈등하면서 공존해왔다. 제주인의 공동체생활양식 중에서 수놓음, 켄당 등공동체에 대한 집착 덕분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의 문화의 복합성과 다층성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시 고대적 민속이 탈근대적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논의가 너무 추상적 사변적으로 흘렀다. 비유를 해보자. 20세기 전반

25) ‘경작한다’는 어원을 지닌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는 (미개未開를 넘어선) 마음이나 정신의 상태 또는 사회적 발전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넘어서 최근에는 그 의미를 특정 집단의 삶과 과정과 나아가 의미화의 실천이라는 역동적인 개념 규정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문화의 본질을 특정 집단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천의 장이란 뜻으로 정의한 것은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6, 15-19쪽을 참조할 수 있다.

부만 해도 서구 열강의 학자들이 제3세계 오지에 들어가서 민속을 탐구했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일본 제국주의 학자들이 식민지 조선의 오지를 연구했고 서울을 비롯한 육지부 학자들이 제주 오지에서 민속을 연구했다. 그러다가 해방 후부터 비로소 제주 출신의 제주학자가 제주를 연구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이제 2008년 현재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아파트에 살면서 차를 몰고 나온 어떤 제주사람이 서귀포 쇠소깍 언저리 나무 밑 허름한 신당에서 굿 같은 토속신앙 공연에 동참했을 때 그를 두고 ‘문화제국주의자’ ‘서울의 아류화’라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학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광통신 인터넷망 노트북을 들고 아파트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본풀이’ 같은 무당굿놀이를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할 수 있다! 일부러 오지로 탐험가지 않아도 아파트 앞에서 원시문화의 현존형태를 그 자체로 현장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살아있는 도시민속이고 제주만의 진정한 정체성 아닐까한다.²⁶⁾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학과 탐라문화연구의 방향은 모름지기 제주라는 특정지역, 원시 고대의 신화와 무가, 4.3이라는 시공적 범위를 과거 유산에 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주를 연구할 때는 문화 인류학, 사회학의 보편론적 관점을 중심에다 두고 지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확보하는 역사학적 접근이 보태져야 하며 그 구체적 실현태로

26)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의 요구이며 실사구시적인 방법론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민속학이 과거과학인 동시에 현재 과학이므로 이제까지의 역사적 방법과 아울러 사회적 방법에 의한, 변동하는 현대사회의 민속연구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민속학 연구자들은 민속학이 민족과 문화 또는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과학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시사회의 연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가져야만 한다.” 김의숙, 『강원도 민속학의 발전과정과 전망』,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세미나 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참조.

서 지역문화, 문학예술을 학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²⁷⁾ 이러한 보편론적 시각(통찰, 전망)을 확보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제주학’이란 타자의 용어개념 접근법을 넘어서서, ‘탐라문화연구’란 내재적 주제적 접근이 다시금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할 터이다.²⁸⁾

5. 맺음말

펼치는 서울내기이며 제주학엔 문외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시선으로 제주학, 탐라문화연구의 몇 쟁점에 대한 생각을 거칠게 토론했다. 제주는 지방/지역학을 펼치기에 천혜의 좋은 자산을 갖고 있으나 그렇기에 더욱 지역 특권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요지이다. 또한 한반도 유일의 원시 고대 신화, 무가가 살아있는 현장인 만큼 역으로 문화적 박물관화, 학문적 화석화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학의 방향이 편협한 지방주의나 배타적 향토주의 같은 지역 특권에 안주하거나 언어적 민속적 특수성에 집착하여 급변하는 현실 세계를 외면한 채 살아있는 문화를 과거유물로 화석화시키지 말란 생각이다. 다른 한편 제주학의 담당자가 자긍심으로 공유하고 있는 주체의 강

27) 조셉 캠벨과도 같은 비교문화론적 관점, 홉스봄 같은 전체사적인 관점, 혹은 일상성과 미시적 시선, 앙리 레비의 신철학적 관점 등이 제주학의 화석화를 경계하고 보편화를 지향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J. Campbell,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 Eric J. Hobsbawm, 정도영, 차명수 옮김, 『혁명의 시대』, 한길사, 1998. ; 곽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 Alf Lüdtke 외, 이동기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 Bernard Henri Levy, 박정자 옮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흥성사, 1978. 참조.

28) “타자의 용어인 ‘제주’를 버리고 탐라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선행돼야 진정한 제주문화연구와 제주학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허남춘,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12, 375쪽 참조.

조 또한 그 나름 의미가 크지만, 출신/거주 같은 정주의식 자체가 기준이 되거나 제주가 최고라는 자기중심주의로 환원되면 학문적 발전을 기할 수 없고 연구자 풀이 한정되는 만큼 그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제 탐라문화연구소가 지향하는 제주학 정립 방향에서 지역문화의 지역적 특권화와 전통문화의 화석화를 지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골동품 취급하지 말고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삶의 증거로 삼아 현장론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한다. 시간축으로는 원시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근현대 내지 탈근대까지 일원적으로 통찰하고, 공간축으로는 구전자료와 문헌자료, 사이버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동원하며, 논리축으로는 현지 조사 체험과 학문적 보편논리를 가다듬는 이론적 모델링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서 현실적 쓸모를 찾아낼 때 제주학은 비로소 지역학을 넘어서 민족(지)학 내지 보편이론까지 승화될 수 있다. 방언이나 문화적 맥락을 체득한 현지 출신 연구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삶의 섬세한 결까지 속속들이 찾아낸 지역문화의 특징적 현상을 정리하되, 그래서 얻은 자료나 성과물을 그 자체로 소중하다 하여 자료집이나 박물관, 창고에 보존한 채 만족하면 곤란하다. 실증주의 차원에서 지역자료가 이렇다고 자랑하는데 그치지 말고, 연구의 의의를 확대하여 보편이론화를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 제주학은 현실 안주의 실증보다 미래를 겨냥한 모험적 시론, 새로운 의제(agenda)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은 그것대로, 변한 것은 변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학문적 태도일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2008년을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의미의 실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살려가는 학문적 개방성, 문화적 역동성이야말로 진정한 제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학은 이제 과거

의 제주에만 머물지 말고 도시화, 탈근대화가 진행되는 현존하는 현재 진행형의 제주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제주라는 지방/지역에 안주하지 말고 제주를 넘어서서 한반도, 동아시아, 전지구적 보편성으로 원근법적 통찰을 지니고 도약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학의 연구범주와 연구자가 확산되어 진정한 학문적 발전 및 그에 따른 인간적 삶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를 벗어나야 진정한 제주학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 김동전, 『제주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 김병철,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강원개발연구원, 2000.
- 김의숙, 『강원도 민속학의 발전과정과 전망』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세미나 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 김정호, 『서울제국과 지방식민지』, 지식산업사, 1991.
- 김현선, 『제주도 돛제와 케네깃당 본풀이 연구』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12.
- 김창수, 『인천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인천학의 탐구』,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7.
- 나간채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 당대비평 편,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 제주도의 해민정신』 제3판, 각출판사, 2001.
-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한울, 1998.
- 신행철,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출판부, 2004.
- 안두순 편, 『서울학연구 서설』, 서울학연구소, 1994.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6.
-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제주도연구』 15집, 제주도학회, 1996.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재록)
- 이상섭·권태환 편, 『우리나라 지역연구의 형성과 과제』, 『한국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 서울대출판부, 1998.
- 이연숙, 『제주, 오끼나와의 투쟁의 기억 - 까마귀와 소라게 이야기』,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12.
-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 제주작가회의 편,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 4.3평론선집』, 각, 2004.
- 조동일, 『민족문화연구의 전반적 과제』,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3.
-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출판부, 2003.
- 조동일, 『세계. 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권, 지식산업사, 2005.
- 조성윤, 『서울학과 사회학 : 서울학 정립을 위한 검토』, 안두순 편, 『서울학연구 서설』, 서울학연구소, 1994
- 조성윤,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세미나 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 한기범, 『지방화시대 지역학의 동향과 인문학적 과제』 『21세기, 대구경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 - 낙동포럼세미나 자료집』, 대구경북연구원, 2005.6.
- 허남춘,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7.12.
-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李孝德,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1991.
- Bourdieu, Pierre, 최종철 역,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 Bourdieu, Pierre,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2000.
- Campbell, Joseph,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 Clifford, James, 이기우 역, 『문화를 쓴다 : 민족지의 시학과 정치학』, 한국문화사, 2000.
- Easthope, Antony,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술사, 1994.
- Levy, B. Henri, 박정자 옮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홍성사, 1978.
- Lüdtke, Alf 외, 이동기의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 Said, E.,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3.
- Said, E., 김성호 · 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1995.
- Williams, Raymond, 박만준 역, 『문학과 문화이론』, 경문사, 2003.
- Hobsbawm, Eric J., 정도영 · 차명수 옮김, 『혁명의 시대』, 한길사, 1998.

| |
|----------|
| Abstract |
|----------|

Beyond a Local Privileging and a Cultural Fossilization

- A Study on Jeju-do on the Basis of Other's Eyes -

Kim, Seong-Su*

This Study purposed to present a direction and a subject on Jeju-do on the basis of the eyes of others except the Jeju-do people. Jeju has a valuable property to carry out a regional science besides area studies. That is because a myth or a shamanism such as '*Bonpuri*' is still alive in the people's lives and the issues in the modern history such as '*4·3 Resistance*' are maintained variously with changed forms like '*4·3 literature*'. So, it has not to be satisfied to a local privilege like a narrow regionalism and an exclusive local patriotism. In addition, it would be inadequate to be satisfied to a collection and a maintenance of the original forms with disregarding the sharply changed reality through adhering to a special language only in Jeju and a folk speciality. That's because there are risks to fossilize the live culture such as curios exhibited in museums. Besides taking pride of the greatness of collected materials, we have to enlarge the meaning of studies and purpose to make a general theory like 'the fourth world literature theory'. There can be some problems in emphasizing the sense of independence such as a member of Jeju study or Jeju people. If we emphasize a birth place, a residence sense or a local patriotism too much or addict to an egotism, we cannot promise the development of studie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can decrease. Jeju science has

* SungKyunKwan University

to aim at the present progressive form of Jeju to carry out an urbanization and de-modernization rather than be satisfied to the past Jeju. Then, it can achieve a real Jeju science when leaving from Jedu-do.

Key Words

Jeju, Jeju science, a study on Jeju culture, regional science(local science), regional studies, regionalism, *Bonpuri*, *4.3 literature*

교신 : 김성수 Dept. of the University Colleg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110-745 KOREA
(Tel : 82-2-740-1580 / 82-11-724-3248, Fax : 82-2-760-0990)

최초 투고일 2008. 7. 25

최종 접수일 2008. 8. 11